

세계 AV 시장의 동향

- 디지털 수요 세계로 확대 -

편집실

TV나 DVD레코더, DSC(디지털스틸카메라) 등, 신규디지털AV의 수요가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휴대전화를 인터넷에 연결해 DVD레코더의 녹화예약을 밖에서 하는 등, AV/IT의 네트워크화가 진행되어, UPnP(유니버설플러그 앤플레이)로 대표되는 유비쿼터스시대의 네트워크기술 개발이나 표준화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심장부인 LSI는 나노테크놀로지 시대를 맞아 디지털AV제품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함께 성공의 큰 열쇠를 쥐고 있다.

'세계동시확대'로 생산 구조나 마케팅도 바뀌어 2004년은 AV디지털화가 업계의 구조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다.

PDP TV나 LCD TV의 수요가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BS에 이어 2003년 12월부터 지상디지털방송이 시작되었지만 방송의 디지털화는 세계적인 동향으로, 한발 앞 선 구미에 이어 앞으로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의 지상디지털방송은 200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전국 서비스가 확대되어 2011년에는 현행의 아날로그방송을 중지할 것이다.

TV의 디지털화와 평면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연간수요가 1억 3천만대에서 1억 5천만대인 TV를 급속히 전환하고자 한다. 2007년 세계수요가 플라

스마TV는 500만대, LCD TV는 2800만대에 달한다고 예측하는 업체도 있다.

일본계 업체의 평면TV의 조립은 빨라도 멕시코나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중국 등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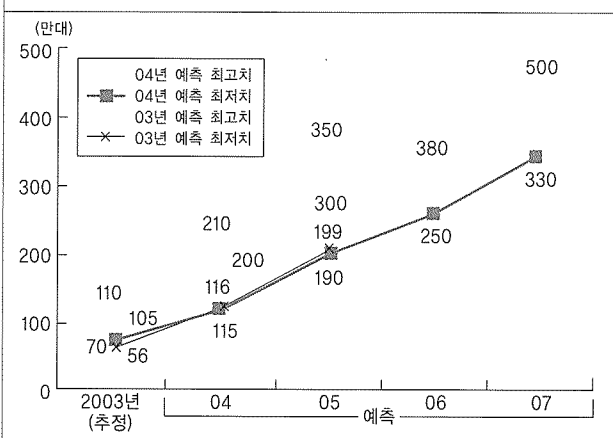
2004년은 세계 수요의 확대가 가속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특히, LCD 패널의 공급부족이 우려된다. 대만업체가 지금까지의 PC중심 사업에서 TV로 옮긴 것도 패널 부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마쓰시타전기는 'PEAKS', 소니는 'WEGA엔진', 도시바는 '마방진알고리즘', 히타치제작소는 'DIPP' 등, 각 업체는 고화질기술을 내세워 서로 경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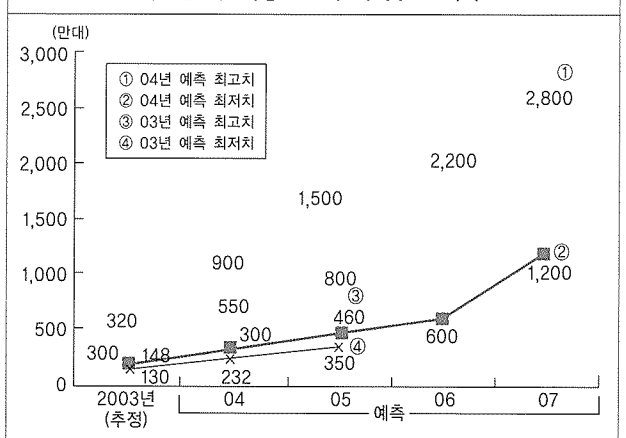
이 기술은 LSI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평면TV의 패널만은 발휘할 수 없는 특징을 각 업체는 '엔진'에서 찾음으로써, 이 기술은 향후 반도체업체나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쥐는 열쇠가 될 것이다.

PDP, LCD 모두 대형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 삼성전자그룹의 삼성SDI는 70센티(세로 1000×가로 1550밀리)PDP를 개발, 2004년 초반에 월산 2000~3000대 기준으로 본격 생산할 예정이다. LG전자도 71센티를 개발해 2003년의 IFA(베를린쇼)에서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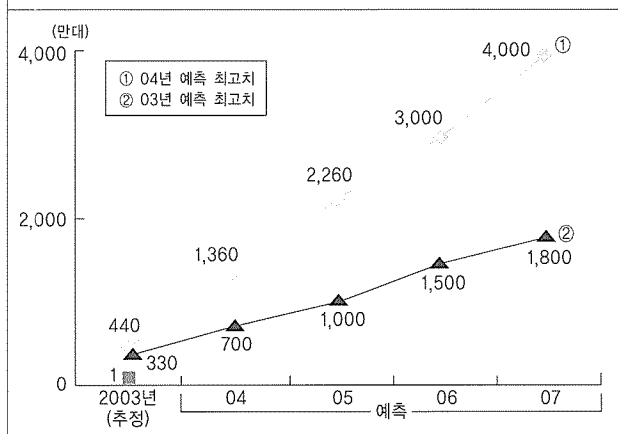
〈그림 1〉 플라즈마 TV의 세계 수요예측



〈그림 2〉 액정 TV의 세계수요 예측



〈그림 3〉 DVD 레코더의 세계수요 예측



‘테이프에서 디스크로’라는 선전문구처럼 DVD레코더의 수요가 일본,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시장은 일본에서 형성되었지만 2003년부터 일본계 업체가 해외시장에 본격적으로 주력하기 시작함으로써 2004년은 대폭 수요증가가 기대된다.

VTR과 달리 되감기나 빨리 감기가 필요 없이 보고싶은 장면을 볼 수 있으며 못 본 장면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는 ‘추적재생’ 기능 등, 사용 간편이 인기의 비결이다.

마쓰시타전기 AV네트워크스사 사장은 ‘2004년을 DVD레코더의 본격 보급 첫해가 될 것이다’고 명언했다. 레코더단체에서 HDD, VTR복합기로 상품의 폭이 넓어졌다. 일본국내에서는 HDD탑재모델에 인기가 있어 시장의 약 7할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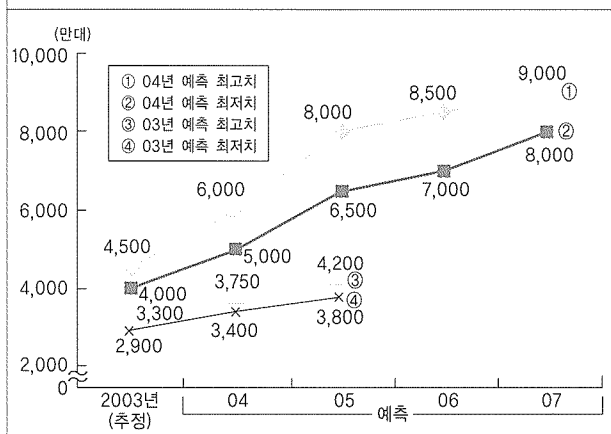
중국업체나 대만업체도 DVD레코더에 적극적이므로 2003년 미 크리스마스판매에서는 500달러 이하인 레코더 단체기가 등장했다.

DVD레코더에서는 4.7GB의 용량문제 때문에 하이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용량광디스크 기록시스템을 개발하여 2004년 중엽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상품화될 것이다.

소니는 차세대인 20GB 초과인 ‘블루레이디스크레코더’를 2003년 봄부터 일본에서 발매하고 있지만 홈네트워크컴퍼니의 홈스토리컴퍼니 사장은 ‘하이비전기록의 본격적인 시스템은 테라바이트급의 용량이 필요하다. 장래의 홈서버도 고려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블루레이진영과 함께 도시바, NEC가 추진하는 ‘HD DVD’도 빠르면 2004년내에 상품화될 전망이다. NEC는 2003년 말에 현재의 DVD에도 대응한 HD DVD드라이브 장치개발을 발표했다. HD DVD의 포맷은 DVD포럼에 규격이 제안되어 2003년 11월에 Ver0.9로써 승인되었다. DVD포럼에서 Ver0.9에 이은 상품화를 전제로 한 Ver 1.0이 승인되면 구체적인 상품화를 추진한다.

〈그림 4〉 DSC 세계수요 예측



일본이나 미국이 선행해온 DSC(디지털스틸카메라)는 2003년에 유럽이나 아시아각국에서 수요가 증가해 세계 시장을 견인했다. 2004년도 순조로운 신장이 예측되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디지털 일안레프의 상품화도 2004년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캐논이미지커뮤니케이션사업본부 DC사업부 부장은 ‘필름카메라의 가동대수는 세계에서 3억 5000천대이다. 디지털스틸카메라는 누계가 아직 1억대에 달하지 못한다. 세계보급률도 필름카메라는 최고 90%를 넘어섰지만 DSC는 평균 30% 정도로 DSC가 앞으로 매년 1천대씩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일본계 업체는 DSC시장에서 압도적인 이점을 발휘해 세계점유율의 70~80%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고급기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보급기를 생산하고 특히 캐논, 후지사진필름 등 카메라계 대기업이 중국으로 생산 이관하고 있다. 대만도 SC산업이 활발해 일본계 업체가 생산을 위탁하는 곳이 많으므로 대만업체의 동향은 2004년도에도 주시해야만 한다.

2003년 6월에 가전·AV, 컴퓨터, 모바일, 반도체 등의 업체가 DHWG(디지털홈위킹그룹)을 설립했다.

‘IP’나 ‘UPnP’, 무선의 ‘Wi-Fi’ 등, 이미 확립, 주지된 표준포맷을 활용해 가전이나 AV, 컴퓨터 등을 상호 접속하여 누구나가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기기 설계의 가이드라인을 책정중이므로 2004년 봄에나 마무리될 것이다.

AV업체는 개개의 하드웨어를 강하게 함과 동시에 네트워크화함으로써 하드웨어를 뛰어넘는 사용가치를 창출하고자 각 업체 사활을 걸었다. PDP 등의 대화면을 가정의 디스플레이에 설치하고 디지털방송이나 인터넷, 케이블 TV로 들어온 풍부한 정보를 홈서버에 축적하여 언제라도 꺼내 활용하는 ‘홈네트워크’의 시대가 가까워졌다. ●